

남성노인의 성역할정체감 유형 연구

Type of Gender Role Identity in Older Korean Men

고성희*, 김명애**, 박은아***

전북대학교 간호대학*, 계명대학교 간호대학**, 부경대학교 간호학과***

Sung-Hee Ko(jane@jbnu.ac.kr)*, Myung-Ae Kim(nurkma@kmu.ac.kr)**,
Euna Park(soundness@pknu.ac.kr)***

요약

오늘날 남성노인들은 급변하는 세대에 적응해가면서 성역할정체감의 위기를 경험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관점에서 성역할정체감을 이해하기 위해 그 유형과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주관적이고 개별화된 경험으로서의 성역할정체감을 확인하기 위해 Q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남성성과 여성성을 나타내는 40개의 Q 표본을 이용하여 40명의 남성노인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남성노인의 성역할정체감은 다음 네 가지 다양한 유형으로 확인되었다. 파워 표출형은 전통적인 남성성의 특성을 나타내는 유형으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박력이 있으며 용감하고 지배적인 성향으로 카리스마를 걸으며 표출한다. 파워 과묵형 남성노인은 독립심이 강하고 소신이 있으나 이를 드러내기 보다는 묵묵히 행동으로 표현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 파워 온정형 남성노인은 추진력 있게 큰 일을 잘 처리하며, 부드러운 성향의 소유자이다. 온정 돌봄형 남성노인은 가정과 아이를 돌보는 것에 보람을 느끼며,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해심과 참을성이 있으며, 유순하고 부드러운 속성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 분류된 노년기 남성의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성역할정체감 유형 별 심리사회적 적응양상, 건강행위, 신체 건강과 정신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중심어 : | 노인 | 남성 | 성 | 역할 | 정체감 |

Abstract

Gender role identity is a key subject toward adaptation in later life. In this paper, we tried to understand the specific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gender role identity in view of older men. The research collected and examined 40 representative descriptions representing gender role identity, including 20 for masculinity and 20 for femininity from 40 older men. We obtained four types of gender role identity of older men from this research. "Powerful-expressive type" is energetic and reveals his brave and dominant tendency when they are working. "Powerful-taciturn type" is strongly independent and has a firm conviction, but they do not express those characters and remain silent. "Powerful-paternal type" handles his work with a driving force, and has a tender character. "Paternal-caring type" finds his own worth in life by caring for his family and children, and considers others more than himself. Future research is needed to verify how the types of gender role identity are linked to psychosocial adaptive aspects, health behaviors, mental and physical health.

■ keyword : | Aged | Male | Gender | Role | Identity |

I. 서론

노년학 문헌에서 최근 노년기 남성들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이 강조되고 있다[1]. 우리나라 남성노인의 경우 은퇴와 함께 사회에서의 역할과 기능이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권과 부계 가족제도 및 성별 분업을 바탕으로 한 가부장으로서의 권위와 권력을 가졌던 존재로서의 역할도 변화되었다[2]. 이에 남성노인은 사회적으로는 물론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족 내에서도 성역할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적응 국면을 맞이하였다.

남성들이 지닌 남성성이란 지극히 시대상황적 유물로[3], 한국사회의 남성은 봉건적 유교전통 속에서 현대의 급변하는 세대에 적응해가면서 자신의 남성성을 형성해 나아가며[4],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남성의 경우에는 성역할정체감 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 성역할 및 성역할정체감은 노년기의 심리적 적응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페미니즘 연구가 여성에 집중하면서, 남성 및 남성의 요구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도 [5] 그 이유 중 하나이다. 국내·외의 성역할정체감과 관련된 연구에서도 남성, 특히 노인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개인의 성역할정체감은 일생을 통하여 계속해서 변화해 나간다[6]. 특히 남성의 경우 건강한 특성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남성이 수동성, 무기력, 자신감의 결핍 등의 징후를 보일 경우 여성보다 더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남성 성역할도 여성 성역할 만큼이나 한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7]. 남성들이 남성성에 지배된 사고를 가질 경우 우울이 유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제시되었는데[8][9], 노인에게 있어서 이러한 우울은 신체기능이나 자아존중감 그리고 건강증진행위와도 관련이 깊다[10][11]. 또한 전형적인 남성성을 가진 경우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신념과 건강관행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질병 발생의 소인이 될 수 있는[12] 등 성역할정체감은 신체건강과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남성노인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연구에서 성역할정체감은 정신건강 측면에서 간과해서

는 안 되는 중요한 개념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 성역할정체감을 다룬 대부분의 연구들은 Bem의 도구를 사용하였거나, 이 도구를 다소 수정한 형태의 도구[7][13]를 사용하였다. 이들 연구에서 사용된 Bem의 도구는 미국 문화권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검사이므로 우리나라 노인을 대상으로 사용하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고[14],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남성성 및 여성성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어 개인 내에 존재하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측면을 다각도로 다루고 있지 못하므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15]. 성역할의 내용은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우리나라 남성들은 서구의 남성들과 부분적으로 다른 성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 이와 같이 성역할정체감에 대한 지각은 사회문화적 가치관에 따라 다양하며, 주관적이고 개별화된 경험이다. Q 방법론은 이러한 개인의 다양성을 고려하면서 개인에 내재되어 있는 관점으로부터 주관성을 표현하게 하고 이에 대한 독특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연구방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Q 방법론을 적용하여 현대사회에 적응하며 생활하는 남성노인의 성역할정체감의 유형과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남성노인의 관점에서 성역할정체감을 이해하며, 연구를 통해 확인된 성역할정체감 유형과 심리사회적 적응과의 관련성을 탐색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노년기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성역할정체감에 관한 주관적인 유형을 확인하기 위해 Q방법론을 적용한 방법론적 연구이다.

2. 자료수집 절차

2.1 Q 모집단 구성 및 Q 표본 선정

Q 모집단이란 한 문화 안에서 공유되는 느낌 또는 의견의 총체인 통합체로서 문헌 및 인터뷰 등을 통해 수집하게 된다. Q 표본은 Q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항목

이기에 Q 표본의 선정은 통합체가 완성되는 단계를 의미한다[16].

본 연구를 위한 Q 표본은 김명애, 박은아, 고성희[17]가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성역할정체감에 대한 인식 연구에서 개발한 Q 표본을 사용하였다. 성역할정체감은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받으므로[18] 한국 문화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Q 표본은 한국인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면접한 자료와 관련문헌을 참고하여 김명애 등[17]이 작성한 것이다. Q 표본은 남성성을 나타내는 20개 항목과 여성성을 나타내는 20개 항목, 모두 4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2 P 표본(P sample)

Q 방법론은 개인 간의 차이가 아니라 개인 내의 중요성의 차이를 다루는 것이므로 P 표본의 수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으며 오히려 P 표본이 커지면 한 요인에 여러 사람이 편중되어 그 특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통계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표본 이론에 따르게 된다[16].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정체감이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받으므로 지역별 차이를 고려할 필요성[19]에 따라 영남과 호남지역의 65세 이상 노년기 남성 각 20명 총 40명의 P 표본을 선정하였다.

2.3 Q 분류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40명의 P 표본에게 40개의 Q 표본(진술문)을 인쇄한 카드를 제공하여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게 한 후 가장 동의(+), 중립(0), 비동의(-)로 분류시켰다. 그리고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부터 차례대로 골라 바깥에서부터(+4) 안쪽으로 분류를 진행하여 중립부분에서 마무리하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비동의하는 진술문을 분류케 하였다. 이 때 양 끝(-4, +4)에 위치한 각각 2개의 진술문들에 대해서 선택하게 된 이유를 서술하게 하였다. 그 외에도 P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건강상태, 성격, 거주 지역을 질문지에 작성하도록 하였다[표 1].

3.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를 윤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표 1. P 표본의 인구학적 특성 및 상관관계

유형	ID	건강상태	성격	거주 지역	인자 가중치
1 (7명)	1	매우건강	내성	호남	.5118
	12	건강	외향	호남	.6953
	16	비건강	내성	호남	.2257
	18	건강	내성	호남	.2230
	26	보통	내성	영남	.5110
	34	매우건강	내성	영남	.5432
	35	비건강	내성	영남	.3385
2 (14명)	2	건강	내성	호남	.7440
	3	매우건강	외향	호남	.7990
	4	보통	외향	호남	.9742
	5	보통	내성	호남	.4082
	6	건강	외향	호남	.8697
	9	건강	외향	호남	.4806
	10	매우건강	외향	호남	1.3916
	11	건강	내성	호남	.4389
	14	건강	외향	호남	.8515
	15	매우건강	내성	호남	.5861
	21	보통	내성	영남	.4550
	23	보통	외향	영남	.9433
	39	보통	외향	영남	.5171
	40	매우 비건강	내성	영남	.3348
3 (13명)	7	보통	내성	호남	.9283
	13	비건강	내성	호남	.7303
	17	비건강	내성	호남	.8993
	19	건강	내성	호남	.4164
	20	비건강	내성	호남	.8329
	25	보통	외향	영남	.7016
	27	보통	내성	영남	.3054
	28	보통	내성	영남	.5880
	29	비건강	내성	영남	.7888
	30	건강	내성	영남	.5195
	31	보통	외향	영남	.3592
	33	건강	내성	영남	.4579
	36	비건강	내성	영남	.6406
4 (6명)	8	비건강	내성	호남	.6250
	22	보통	외향	영남	.3268
	24	건강	내성	영남	.7332
	32	보통	내성	영남	.6487
	37	건강	내성	영남	.7692
	38	보통	내성	영남	.5411
유형 간 상관관계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1	1.000				
유형2	.394	1.000			
유형3	.452	.308	1.000		
유형4	-.382	.311	.219	1.000	

자료수집 전에 W 대학병원의 윤리위원회의 승인(CUMC09U037)을 받았다. 연구자는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였고, 자의에 의한 참여로 연구가 이루어지며 익명이 보장되고 응답한 내용은 연구

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언제든지 중도에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한 후 서면동의서를 받고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였다.

4. 자료 분석 방법

자료의 처리는 Q 표본 분포도에 기록된 진술문항 번호를 확인하여 '가장 부정'하는 문항(-4)을 1점으로 시작하여 2점(-3), 3점(-2), 4점(-1), 중립 5점(0), 6점(+1), 7점(+2), 8점(+3), 9점(+4)으로 점수화하여 코딩 후 컴퓨터에 입력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QUANL PC Program을 이용하여 처리하였고, Q 요인분석은 주요인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가장 이상적인 결정을 위해 아이겐 값(Eigen value) 1.0이상을 기준으로 요인 수를 다양하게 입력시켜 산출된 결과 중 최선이라고 판단되는 유형을 선택하였으며, 적합한 문항을 선정하기 위해 표준점수(Z-score)를 사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각 유형에서 긍정이나 부정적인 면에 동의한 항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석과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Q요인별 특성을 서술하였다. 해석할 때에는 Q요인 분석에서 제시되는 각 Q요인별로 강한 동의 또는 비 동의를 보인 항목, Q요인 간 일치항목, 타 Q요인과 비교해서 높게 동의 또는 낮게 동의한 항목, Q분류 시 P표본이 강한 긍정과 부정을 보였던 항목에 대해 이유를 기술한 자료, 기존 문헌과 일반적 특성 자료 등을 이용하여 결과를 기술하였다.

1. Q유형의 형성

본 연구에서 한국 노년기 남성의 성역할정체감에 대한 주관성을 분석한 결과 네 개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전체 연구대상자 40명 가운데 제 1유형에 속한 사람은 7명, 제 2유형은 14명, 제 3유형은 13명, 제 4유형은 6명

으로 분류되었다. 각 유형에서 인자가중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 속한 유형의 전형적인 혹은 이상적인 사람으로서 그 유형을 대표한다. 이들 각각 요인들의 아이겐 값은 각각 6.5958, 3.3949, 2.5923 이었으며, 각 요인의 설명 변량은 16.49%, 8.49%, 6.48%로 전체 변량의 31.46%를 설명하였다. 유형 간의 상관관계는 각 유형간의 유사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제 1유형과 제 2유형의 상관계수는 .394, 제 1유형과 제 3유형의 상관계수는 .452, 제 1유형과 제 4유형의 상관계수는 -.382, 제 2유형과 제 3유형은 .308, 제 2유형과 제 4유형은 .311, 제 3유형과 제 4유형은 .219이다[표 1].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각 유형은 독립적임을 알 수 있으며, 제 3유형과 제 4유형이 가장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2. 한국 노년기 남성의 성역할정체감 유형의 특성

각 유형이 자신에게 가장 긍정적(동의함) 또는 가장 부정적(동의하지 않음)이라고 선택한 진술문 중 유형별 표준점수가 ±1.00이상인 항목을 중심으로 유형별 특성을 기술하였으며, 유형별 대상자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개별 심층면담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2.1 제 1유형 : 파워 표출형

제 1 유형이 크게 동의하거나 부정하는 진술문과 그 비중을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제 1유형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항목을 살펴보면 의리가 있고, 박력이 있으며, 지배적이고 용감하여 지도력이 있다 등이다. 반면 이 남성노인들은 수다스럽다, 이기적이다, 순종적이다, 감정을 숨긴다, 부드럽다, 온순하다 등의 항목에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이 유형의 특성은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의 의리이며, 결단을 내릴 때는 박력이 있고 용감해야 하며, 지도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이 유형을 보인 사람의 건강상태는 건강한 사람(4명)이 보통(1명)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2명)보다 많았고, 성격은 내성적이라고 응답한 사람(6명)이 외향적이라고 응답한 사람(1명)보다 많았다. 거주 지역은 영남(3명)과 호남(4명)에 대체로 비슷하게 거주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제 1유형은 남성적인 박력과 용기, 지도력이 있다는 점에서 제 1유형을 '파워 표출형'이라고 명명하였다.

표 2. 유형 1이 크게 동의하거나 부정하는 진술문과 그 비중 (표준점수±1.00이상을 보인 항목들)

번호	진술문	Z-score
11	의리가 있다	2.41
12	박력이 있다	1.98
9	지배적이다	1.40
5	용감하다	1.31
1	지도력이 있다	1.02
30	외모를 중시한다	1.01
28	온순하다	-1.17
38	부드럽다	-1.25
10	감정을 숨긴다	-1.27
40	순종적이다	-1.64
16	이기적이다	-1.69
37	수다스럽다	-1.99

2.2 제 2유형 : 파워 온정형

제 2유형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항목을 살펴보면 의리가 있고, 남을 잘 위로하며, 참을성이 있고, 동정심과 이해심이 있다 등이다. 반면 이들은 공격적이다, 이기적이다, 감정을 숨긴다. 수다스럽다, 수줍어 한다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표 3].

이 유형의 특성은 이기적이면서 공격적인 사람을 싫어하며,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다른 사람이 편안한 게 좋고, 혼자 모든 것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고 나누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또한 부드러운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지배적인 것을 싫어하였다.

또한 이 유형을 보인 사람의 건강상태는 건강한 사람(8명)이 보통(5명)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1명)보다 많았다. 성격은 외향적이라고 응답한 사람(8명)이 내성적이라고 응답한 사람(6명)과 보다 약간 많았지만 대체로 고루 분포하고 있었다. 거주 지역은 영남거주자(4명)보다 호남거주자(10명)가 지배적으로 많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제 2유형은 추진력 있고, 불우한 사람에 대해 측은지심을 가진다는 점에서 제 2유형을 '파워 온정형'이라고 명명하였다.

표 3. 유형 2가 크게 동의하거나 부정하는 진술문과 그 비중 (표준점수±1.00이상을 보인 항목들)

번호	진술문	Z-score
11	의리가 있다	1.54
26	남을 잘 위로한다	1.21
29	참을성이 있다	1.16
36	동정심이 있다	1.09
39	이해심이 있다	1.08
1	지도력이 있다	1.06
9	지배적이다	-1.02
18	과묵하다	-1.07
13	독립적이다	-1.14
34	수줍어 한다	-1.60
37	수다스럽다	-1.89
10	감정을 숨긴다	-1.94
16	이기적이다	-1.99
2	공격적이다	-2.04

2.3 제 3유형 : 파워 과묵형

제 3유형의 사람들이 크게 동의하거나 부정하는 진술문과 그 비중을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제 3유형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항목을 살펴보면 매우 독립적이고 의리가 있으며 동정심과 소신이 있다 등이다. 반면 이들은 애교가 있다, 수다스럽다, 외모를 중시한다, 순종적이다, 예쁜 물건을 좋아 한다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이 유형의 특성은 모든 일은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려야 하며, 질투심이나 애교를 부리는 것을 싫어하며, 잔정이 부족하고 표현을 잘 못하는 편이며, 타인이 먼저 건드리지 않으면 온순하나 타인이 나에게 먼저 해를 입히면 온순하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이 유형을 보인 사람들의 건강상태는 건강한 사람(3명), 보통(5명), 건강하지 않은 사람(5명)이 비교적 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성격은 내성적이라고 응답한 사람(11명)이 외향적이라고 응답한 사람(2명)보다 지배적으로 많았고, 거주 지역은 영남거주자(8명)가 호남거주자(5명)보다 다소 많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제 3유형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소신 있게 해나가고, 개성을 중요시 한다는 점에서 제 3유형을 '파워 과묵형'이라고 명명하였다.

표 4. 유형 3이 크게 동의하거나 부정하는 진술문과 그 비중 (표준점수±1.00이상을 보인 항목들)

번호	진술문	Z-score
13	독립적이다	1.95
11	의리가 있다	1.72
36	동정심이 있다	1.54
8	소신이 있다	1.46
26	남을 잘 위로한다	1.42
12	박력이 있다	1.22
17	성격이 강하다	1.04
31	질투심이 있다	-1.20
32	예쁜 물건을 좋아한다	-1.21
40	순종적이다	-1.23
30	외모를 중시한다	-1.24
37	수다스럽다	-1.98
23	애교가 있다	-2.11

표 5. 유형 4가 크게 동의하거나 부정하는 진술문과 그 비중 (표준점수±1.00이상을 보인 항목들)

번호	진술문	Z-score
36	동정심이 있다	2.07
39	이해심이 있다	1.70
22	아이를 잘 돌본다	1.61
28	온순하다	1.59
29	참을성이 있다	1.54
26	남을 잘 위로한다	1.28
3	아심이 있다	-1.12
6	대범하다	-1.21
1	지도력이 있다	-1.39
9	지배적이다	-1.71
12	박력이 있다	-1.84
2	공격적이다	-1.86

2.4 제 4유형 : 온정 돌봄형

제 4유형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항목을 살펴보면 동정심과 이해심이 있으며, 아이를 잘 돌보고, 온순하며, 참을성이 있다 등이다. 반면 이들은 공격적이다, 박력이 있다, 지배적이다, 지도력이 있다, 대범하다, 아심이 있다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표 5].

이 유형의 특성은 주위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남의 말을 잘 들어주며, 아이나 사람들을 잘 돌보며, 지배적인 것을 싫어하였다. 또한 이 유형을 보인 사람들의 건강상태는 건강한 사람(2명), 보통(3명), 건강하지 않은 사람(1명)이 고루 분포되어 있었고, 성격은 내성적이고 응답한 사람(5명)이 외향적이라고 응답한 사람(1명) 보다 많았다. 거주 지역은 호남(1명)보다는 주로 영남 지역에 거주(5명)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제 4유형은 아내나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고 돌보며, 어려운 사람을 잘 이해한다는 점에서 제 4유형을 ‘온정 돌봄형’이라고 명명하였다.

VI. 논 의

남성 성역할 연구는 1976년 미국에서 Brannon이 남성 성역할의 기초가 되는 특성을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으며[1],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청년기를 중심으로 성역할정체감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18][20].

본 연구는 우리나라 남성노인을 대상으로 성역할정체감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고자 시도한 첫 번째 연구에 해당하여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남성노인의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관해 해석하고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남성노인 중 파워 표출형은 전통적인 남성성의 특성을 나타내는 유형으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박력이 있으며 용감하고 지배적인 성향으로 카리스마를 겉으로 표출한다. 파워 표출형 남성노인이 리더십과 파워를 외적으로 발산하는 유형이라면, 파워 과묵형 남성노인은 독립심이 강하고 소신이 있으나 이를 드러내기 보다는 묵묵히 행동으로 표현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 파워 온정형 남성노인은 추진력 있게 큰 일을 잘 처리하는 것은 파워 표출형과 유사하나, 부드러운 성향을 지닌 리더형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네 가지 성역할정체감 유형 중 위 세 가지 유형이 파워의 속성을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과는 달리, 온정 돌봄형 남성노인은 가정과 아이를 돌보는 것에 보람을 느끼며,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해심과 참을성이 있으며, 유순하고 부드러운 속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Brannon은 남성 성역할 속성을 네 가지로 분류한 바 있다[1]. 그가 분류한 성역할은 정형화된 여성특성에 반하는 ‘No Sissy Stuff’, 거칠고 확신에 차고 독립적인 ‘The Sturdy Oak’, 성공과 권력을 지향하는 ‘The Big Wheel’, 공격적이고 폭력적이며 용감무쌍한 성향을 보이는 ‘Giv’Em Hell’로. 전형적인 남성성에 해당되는 것

이다. Brannon의 분류에 의거해볼 때, 본 연구의 파워 표출형, 파워 온정형, 파워 과묵형의 세 가지 유형은 남성성에 해당되는 파워의 속성을 모두 포함하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파워를 표출하는지 내면화하는지 혹은 여성적인 온화함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따라 유형이 나타났다. 본 연구자의 선행연구[20]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년기 남성의 성역할정체감은 파워 소신형, 온정 감성형, 온순 감성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우리나라 청년기 남성은 파워의 속성보다는 온정 온순 감성적 속성을 지니, 전형적인 남성성이 감소된 반면 부드럽고 감성적인 여성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그에 반해 본 연구대상인 남성노인은 여성성이 드러난 온정 돌봄형을 제외하고는 전형적인 남성성이 기저를 이루어 전통적인 남성의 성역할정체감을 고수하고 있는 경향이였다. 남성노인의 경우 다양한 유형의 성역할정체감이 존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대에 따라 그리고 발달단계에 따라 변화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이는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이분적인 구도를 전제로 해서 성역할정체감에 관해 수행되었던 기존의 연구들[21-23]과는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이러한 유형 구분에 근거하여 추후 발달단계별 성역할정체감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남자는 강해야하므로 자기 내면을 드러내 보인다는 것은 약자의 행동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풍토일 경우, 남성이 감정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여성적 품성’으로 치부하고[4], 그리고 ‘아기를 (돌)보지 않는다’는 것을 남성다운 행동의 틀이라고 보고[3],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등의 남성 성역할에 대한 인지가 높을수록 부부간의 의사소통에 도움이 된다고 제시하기도 하였다[24]. 이러한 주장에 의거하면, 본 연구의 온정 돌봄형 남성노인은 전통적인 남성성으로부터 상당히 변화된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추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남성노인의 경우에 활동의 장이 직장에서 가정으로 바뀌면서 성역할정체감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도 추정할 수 있다. 기혼인 남성노인의 경우 가족을 대상으로 돌봄 제공자로서의 책임감이 증가되므로 이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남성노인은 성역할정체감을 고수하기 보다는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25]. 돌봄이란 여성의 전유물이 아니며, 남성노인들의 돌봄 상황에 대한 개입은 불가피하고 중요한 것이기도 하므로 남성 돌봄을 주제로 한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전술한 바 있듯이 성역할정체감은 일생을 통해 계속 변화한다고 하지만, 청년기 이외에 노년기 대상자 특히 남성노인을 다룬 연구가 없었다.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성역할정체감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파워 표출형은 내성적인 성향의 대상자가, 파워 온정형은 외향적이면서 호남지역의 거주자가, 파워 과묵형은 건강하지 않은 상태의 내성적인 성향에 속한 영남지역의 거주자가 많았으며, 온정 돌봄형은 내성적이며 영남지역의 거주자에 다소 편향되었다. 인구학적 변수 중에는 거주 지역만을 동수로 표집 하였을 뿐, 건강상태와 성격에 대한 질문은 척도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주관적인 반응을 자료 수집하였기에 논의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보고한 대상자가 많은 유형은 파워 과묵형으로 나타나, 성격과 성역할정체감간의 관계를 추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해서는 추후 구체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거주 지역별로 보면 호남지역 대상자는 파워 온정형에, 영남지역 대상자는 파워 과묵형과 온정 돌봄형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영호남 대학생을 대상으로 집단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특성을 조사한 연구[20]에 따르면, 경상도 응답자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 사람들이 ‘무뚝뚝하다’고 보고하였다. 한국의 가부장적 가치관에 대해 영호남 지역을 비교한 연구[19]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로 미루어볼 때 연구 설계가 달라 직접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나, 호남지역 대상자들에 비해 영남지역 대상자들은 겉으로는 과묵하여 표현이 적으나 내면은 돌봄적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다. 이는 영남지역이 호남지역에 비해 가부장적 가치관이 강한 것[19]으로 추정되어지나, 이에 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전형적인 남성성에 대한 신념이나 규범을 지닌 남성은 전형적이지 않은 남성성에 비해 바람직하지 못한 건강 행위를 나타내며 더 많은 건강문제의 위험을 지니고 있다[27]. 또한 남성 성역할 규준에 따라 성공한 남성들도 성역할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으

로 성역할 갈등을 겪을 수 있다[7]. Deutch와 Gilbert[28]의 연구에 따르면 ‘이상적 남성’으로서 자신을 자각하지 못한 남성들은 자기비하와 개인적 부적응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Feather와 Simon[29]은 한 개인이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수용되지만 남성들은 성역할에 부적절한 인물로 평가받았다고 주장하였다. McDermott, Tull, Soenke, Jakupcak와 Gratz[30]는 남성적인 성역할에 대해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면 약물중독에 빠지거나, 불안장애나 사고 억제와 같은 증상을 보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성역할정체감은 건강행위와 건강문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과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성역할정체감이 남성노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하고, 노인에 대한 교육이나 프로그램 제공에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년기 남성의 성역할정체감에 대한 주관성을 유형화함으로써 유형별 특성과 차이점을 이해하였으며, 나아가서 성역할정체감의 유형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과 정신건강의 측면에서의 관련성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촉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남성노인은 네 가지의 다양한 성역할정체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노인이 전형적인 남성성의 특성만을 고수할 경우 성역할갈등은 물론 건강행위, 건강문제, 심리사회적 부적응문제와 관련될 수 있는 등 성역할정체감은 노년기 적응과 관련이 있다.

간호사는 본 연구에서 확인된 남성노인의 네 가지 성역할정체감 유형별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이들에게 적합한 역할을 모색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파워 표출형 노인의 경우 전통적 가부장적 권위를 고수하기 보다는 이를 절제하고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노후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파워 과묵형 노인에 대해서는 자신을 표현할 기회를 갖도록 사회활동의 기회를 마련하고 이를 장려해 줄 필요가 있

다. 파워 온정형 노인은 남성으로서의 특성과 더불어 부드럽고 온화함을 겸비하였다는 점에서 성숙되고 유리한 점을 지니고 있음을 인정해 주고, 이를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온정 돌봄형 남성노인은 가족을 대상으로 돌봄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담당함으로써 새로운 역할을 획득해 나가도록 장려해 줄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년기가 길어지고, 조기정년 및 성인 자녀와의 별거 희망자 증가로 노부부가 노후를 함께 보내야 하는 기간이 긴 노년기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의 성역할정체감을 조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성역할정체감의 특성을 고려한 남성노인의 이해에 기초하여 심리적 적응과 건강을 돕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분류된 노년기 남성의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성역할정체감 유형 별 심리사회적 적응양상, 건강행위, 신체 건강과 정신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성별, 발달단계별, 지역특성 및 성격특성별 성역할정체감을 확인하는 연구, 남성노인의 온정 돌봄형의 출현과 함께 남성노인의 돌봄 상황의 참여 확대로 인해 성역할정체감 측면에서 남성 돌봄을 주제로 다루는 연구도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참고 문헌

- [1] K. M. Bennett, "No Sissy Stuff: Towards a theory of masculinity and emotional expression in older widowed men," *J. Aging Stud*, Vol.21, pp.347-356, 2007.
- [2] 김영혜, "노년기 젠더관계와 심리적 복지감-유배우 노인의 성역할태도와 가사노동분담의 영향에 대하여", *한국인구학*, 제27권 제1호, pp.1-30, 2004.
- [3] 조정문, *남성학과 남성운동 Men's Studies & Men's Movement*, 동문사, 2000.
- [4] 여성모임 사랑, *남성연구*, 나라사랑, 1993.
- [5] T. M. Calasanti, *Theorizing age relations*, In S. Biggs, A. Lowenstein and J. Hendricks (des) A

- Need for Theory, Baywood Press, 2003.
- [6] 박진성, 안미, “중학교 운동선수의 성역할정체감 분석”, 한국스포츠리서치, 제14권, 제6호, pp.793-808, 2003.
- [7] 박수애, 조은경, “남성 성역할이 우리나라 남성들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8권, 제2호, pp77-103, 2002.
- [8] J. L. Oliffe and M. J. Phillips, “Men, depression, and masculinities: a review and recommendations,” J. Mens Health, Vol.5, No.3, pp.194-202, 2009.
- [9] H. A. Priess, S. M. Lindberg, and J. S. Hyde, “Adolescent gender role identity and mental health: gender intensification revisited,” Child Dev, Vol.80, No.5, pp.1531-1544, 2009.
- [10] 이종화, “여성독거노인의 우울과 자아존중감 및 건강증진행위”, 정신간호학회지, 제14권, 제2호, pp.109-118, 2005.
- [11] 서지민, 김명희, 김주성, “노인 여성의 우울 관련 변인에 대한 판별분석”, 정신간호학회지, 제15권, 제3호, pp.237-245, 2006.
- [12] W. H. Courtney, “Constructions of masculinity and their influence on men’s well-being: a theory of gender and health,” Soc Sci Med, Vol.50, pp.1385-1401, 2000.
- [13] 이병숙, 김명애, 고효정, “한국인의 성역할정체감 검사 도구 개발”, 대한간호학회지, 제32권, 제3호, pp.373-383, 2002.
- [14] 장하경, 서병숙, “성역할정체감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간호학회지, 제29권, 제4호, pp.167-179, 1991.
- [15] M. B. Littlefield, “Gender role identity and stress in African American women,” J. Hum Behav Soc Environ, Vol.8, No.4, pp.93-104, 2003.
- [16] 김홍규, *Q 방법론-과학철학, 이론, 분석 그리고 적용*, 커뮤니케이션북스, 2008.
- [17] 김명애, 박은아, 고성희, “Older women perspective on gender role identity in Korea,” Poster session presented at the 1st Global Congress for Qualitative Health Research, Seoul, Korea, 2011(6).
- [18] 박병금, 노필순, “청소년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과 적응”, 청소년학연구, 제16권, 제8호, pp.149-177, 2009.
- [19] 김혜순, “한국의 가부장적 가치관에 대한 실증적 분석(II)”, 사회과학논집, 제14권, 제1호, pp.197-216, 1995.
- [20] 박은아, 고성희, 김명애, “청년기 남성이 지각하는 성역할정체감과 그 함의”, 주관성연구, 제22권, pp.147-160, 2011.
- [21] J. Fernandez and M. T. Coello, “Do the BSRI and PAQ really measure masculinity and femininity?,” Spanish J. Psychol, Vol.13, No.2, pp.1000-1009, 2010.
- [22] R. Isaac and A. Shah, “Sex role and marital adjustment in indian couples,” Int J. Soc Psych, Vol.50, No.2, pp.129-141, 2004.
- [23] K. Thompson, L. L. Glenn, and D. Vertein, “Comparison of masculine and feminine traits in a national sample of male and female nursing students,” Am J. Mens Health, Vol.5, No.6, pp.477-487, 2011.
- [24] 임나현, 하규수, “노년기 부부의 성역할 태도와 의사소통이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2, No.11, pp.199-214, 2012.
- [25] O. Ribeiro, C. Paul, and C. Nogueira, “Real men, real husbands: Caregiving and masculinities in later life,” J. Aging Stud, Vol.21, pp.302-313, 2007.
- [26] 김진국, “영호남 대학생의 상호간 차이자각 연구”, 사회심리학회지, Vol.3, No.2, pp.113-147, 1987.
- [27] S. P. Hooker, “The potential influence of masculine identity on health-improving behavior in midlife and older African American men,” JMH, Vol.9, No.2, pp.79-88, 2012.
- [28] C. J. Deutch and L. A. Gilbert, “Sex role

stereotypes: Effect on perceptions of self and others, and on personal adjustment,” J. Couns Psychol, Vol.23, pp.373-379, 1976.

[29] N. T. Feather and J. G. Simon, “Positive and negative reactions to male and female success and failure in relation to the perceived status and sex typed appropriateness of occupations,” J. Personal Soc Psychol, Vol.31, No.3, pp.536-548, 1975.

[30] M. J. McDermott, M. T. Tull. M. Soenke, M. Jakupcak, and K. L. Gratz, “Masculine gender role stress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 severity among inpatient male crack/cocaine users,” Psychol Men Masc, Vol.11, No.3, pp.225-232, 2010.

박 은 아(Euna Park)

정회원



- 1996년 2월 : 계명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1999년 8월 : 계명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05년 2월 : 계명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08년 3월 ~ 2011년 8월 : 경운대학교 간호학과 전임강사
- 2012년 9월 ~ 현재 : 부경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성역할정체감, 노인

저 자 소 개

고 성 희(Sung-Hee Ko)

정회원



- 1977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이학사)
- 1990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이학박사)
- 1982년 4월 ~ 현재 : 전북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 정신간호, 노인간호

김 명 애(Myungae Kim)

정회원



- 1969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185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1992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1981년 1월 ~ 1996년 8월 : 전북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1996년 2월 ~ 현재 : 계명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성역할정체감, 노인, 수면, Q방법론